

환경사랑 스터디 모임수기

성명	최현정	입학년도(학년)	2019년
지역	서울	가입 스터디명	환경사랑
스터디 가입기간	2019년3월~2022년 12월	취득한 자격증 (※자격증사본제출)	.
공부기간	2019년3월~2022년 12월	자격증과 연관된 학과 강의교과목 추천	

■ 스터디 소개.(이름, 회원수, 모임횟수, 공부방법 등)

스터디명 : 환경사랑

회원 수 : 35명

모임 횟수 : 학년별로 1주일에 각 1회, 한 달에 4회, 시험 전후로 주말특강

공부 방법 : 과목별 담당을 정한 후 요약정리 및 기출문제 풀이

1학년 1학기는 재학 중인 선배와 동문 선배님의 리딩으로 스터디를 진행 후 1학년 2학기부터는 재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함.

■ 스터디 가입 동기.

공부를 해보자 입학은 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
기만 하던 때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OT를 참석해 보니 스터디가 있다고 하
여 집과 학습관도 가깝고 하여 가입하게 되었다.

■ 스터디를 하면서 제일 도움이 됐던 것

첫째, 나 혼자가 아니라 든든한 동기들이 있다.

앞에서 친절하게 끌어주는 선배님들 감사하지만 어렵다. 하지만 나랑 같은
1학년인 동기들이 있어 든든하다. 물론 방송통신대학교의 특성상 연령대가
다양하지만 똑같은 1학년이다.

둘째, 1학년 1학기에 선배님들이 진행해 주는 스터디로 공부하는 방법과 용
기가 생겼다.

학교 시스템도 어렵고 과목도 어렵기만 한데 1학년이라고 멘투맨으로 하나

부터 열까지 가르쳐주시니 매주 스터디가 기다려진다.

셋째,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직업과 자격증의 정보가 다양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 많고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선배님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새로운 목표와 꿈이 생겼다.

넷째, 공부가 어렵지만 공부가 쉽다.

너무도 생소한 과목들이 많아 어렵지만 스터디를 하면서 이해하고 알게 되면서 쉽고 재미가 있다.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제2의 인생을 위해 준비 중인 산림치유지도사 2급을 2020년 1월에 합격하였으며 2023년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면 산림치유지도사 2급 자격증 발급이 된다. 현재는 보건교육사 3급과 산업위생관리기사를 준비하고 있다.

■ 우리 스터디 만의 자랑거리

20년 역사를 지닌 스터디로써 선, 후배의 돈독한 관계로 졸업 후에도 꾸준한 모임으로 이어져 가면서 재학생들의 길잡이가 되어 끌어주시는 동문 선배님들이 계시고 재학생으로써 현실적인 조언과 정보 공유로 스터디 학우들의 우수한 성적 유지

■ 스터디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스터디 가입 문의하는 분들 중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누가 강의를 해주시나요입니다. 그런데, 스터디는 강의를 듣는 곳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곳입니다.

학기마다 조금씩 바뀌는 교재와 학사 방식을 함께 익히면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또한, 가입비와 연회비가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장담하건대 스터디를 가입해서 동기들과 열심히 스터디를 한다면 성적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4학년 8학기 동안 4번의 성적 장학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한 달에 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동기와 선, 후배들이 생기고 어려운 공부 재미있어진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그 정도의 투자도 못한다면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 활동사진(날짜 및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장 이상)



2020년 2월 1일

환경사랑 스터디 임원 임명 및 총괄그룹장 이, 취임식

2021년과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줌으로 진행하였지만 코로나19 이전에는 매년 초 가장 큰 행사로써 선, 후배 모두 모여 1년 동안 스터디를 이끌어갈 임원과 총괄그룹장 임명하고 축하해 주었다.



2021년 3월 3일

1학년은 매주 수요일 수업일이다.

1학년 첫 스터디 수업 날 동문 선배님들이 참석하셔서 응원해 주시고 신입생들 자기소개하고 간단한 일정 공지하는 모습. 코로나 19 방역 방침에 의해 줌과 오프라인은 병행하였다.